

# 산도

| 퍼낸이, 퍼낸곳  
한국기독교장로회 예가교회

|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22-41  
☎ 756-7707  
Fax 756-7607

| 인터넷  
<http://yega.org>

| 담임교역자  
조익표

| 부교역자  
장영진, 조영희

## 예가교회

**예가교회는,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거듭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충만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족으로 성장한다.**

금주의 말씀	2
중보기도	5
매일기도	6
성경 자세히 읽기	8
가족소식	12
발에 감추인 보화	14
예가소식	16

■ 성령강림절 첫째 주일/2015년 5월 24일

'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시며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자 발간합니다.

##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신의 몸으로 일하기는 싫어하면서 먹을 것은 빠지지 않고 챙겨먹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이들은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합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교회에서 먹을 것을 주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공동체에서 추방한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강한 질타를 받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들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에게 주어진 합당한 징계는 가지고 있는 것조차 빼앗고 어둠 속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은 이유는 뭘까요? 단 하나뿐입니다.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름뱅이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 구걸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잠 20:4) “게으름뱅이의 욕심은 그 자신까지 죽이니 자기 손으로 어떤 일도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잠 21:25)

왜 사랑을 말하는 성경이 게으른 자에게는 이토록 강하게 저주 할까요? 게으름과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은 정면으로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시키는 사람은 세상에서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아 필요한 일을 시킵니다. 폭력으로, 돈으로, 또는 자신의 매력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

합니다. 세상은 소수의 유한계급과 다수의 노예들로 구성됩니다. 교회에서 게으른 사람들은 세상 권력자의 행태를 교회에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이 형제를 노예 삼으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참으로 타당합니다. 노동능력을 상실해서, 장애를 입어서 등으로 일을 못할 경우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교회에서 먹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싫어해서 안 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은석님에게 '집밥 요리'를 배우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내 몸으로 얻는 것에 지나치게 서툴다는 것입니다. 매일 3번 이상 씹 먹는 밥인데, 그 밥을 만드는 일

이 이 정도로 낯설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미안함도 염치도 없이 마땅히 내 일을 떠넘긴 결과입니다. 밥 먹는 일만 그랬을까하고 자문해봅니다. 역할분담이라는 명분으로, 나는 그 시간에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합리화로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있는 내가 보였습니다. 자신의 돈을 들여 그 먼 길을 운전하고 밥 먹는 기술을 손수 가르치는 사랑의 노동자, 은석님을 거울로 게으른 나의 모습을 오늘 보았으니 이제 돌이킵니다.

내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내 몸으로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것의 내용이 오늘 더 풍성해졌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새롭게 창조됩니다. 내일은 그리스도에게 더욱 가까워질 것을 믿습니다.



■ 오늘은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절기와 관련된 묵상이라든가, 그 절기의 주제를 가지고 자기 삶을 정비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면 5월이 가정의 달이라는 것이 역시

실감이 납니다. 어린이날이다 어버이날이다 스승의 날이다 해서 5월은 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씩 관심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꺼번에 열 가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한 번에 한 가지씩 열 번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을 하루하루 해서 10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교회절기도 마찬가지인데 부활절기에는 부활이라는 표제와 주제를 가지고 그것에 관련된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전보다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죽어서 언제일지도 모르는 그 미래에 엄청난 영광을 다 누린다고 합니다만, 보통 사기꾼이 그렇게 합니다. 약간 위험해 보일지라도 지금 투자하면 언젠가는 굉장히 떼 부자가 될 거라고 사기 치는데, 지금 현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입문하기 전에도 힘들고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면서도 힘들어 합니다. 죽기 전까지 온갖 고생을 하다가 죽을 때도 힘들어하며 죽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왔을 때쯤 그때에 영광이 올 거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고생은 비난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힌두교는 참 멋진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힌두교는 윤회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선하게 살면 다시 태어날 때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힌두교의 골자입니다. 업보라고 하는 것이 힌두교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지금 생에서 고생하는 것은 전생의 업보입니다. 전생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금 생에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는 고생을 해도 죽어서는 영광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교리보다는 저는 힌두교의 교리가 더 좋아보입니다. 이 삶을 사는데 기독교의 교리보다 힌두교의 교리가 더 마음이 편하고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괴로운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전생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식으로 모든 문제에 관한 의문이 다 해결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짧고 굵고 강하고 쉽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도의 힌두교 쪽 계통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전 세계 1위라는 것입니다. 거의 10위권은 힌두교 계통의 종교가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쪽은 거꾸로 10위권에서 맴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같이 살면서 힘이 드신다면 힌두교 쪽으로 귀의하시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의 기독교가 가르치는 교리보다는 훨씬 더 훌륭하고 쉽고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힌두교에 비하면 기독교 교리는 매우 이상합니다. 내



다니엘서	7 : 9 - 14
고린도후서	5 : 14 - 21
요한복음서	17 : 1 - 11

통해 자기의 삶을 부활이라는 주제로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그것도 첫째 주는 반짝하고 둘째 주까지는 약간 생각을 하다가 셋째 주부터는 별생각이 없어지는데, 사람이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부활절 절기의 색은 하얀색인데, 이렇게 색깔을 쓰고 하는 이유도 색깔을 통해 변화를 주고 집중을 유도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부활이라는 표제는 있는 그대로 죽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고 있던 부활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50년도 더 뒤에 있을 죽음을 미리 죽고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부활을 미리 사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활절이라는 것은 언젠가 있을지도 모르는 너무 멀어서 감도 안 잡히는 그런 부활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의 나의 죽음과 오늘 이 시간의 나의 부활을 묵상하고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절에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워낙 사람들이 욕심 사납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



가 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져서 없애셨기 때문에 내 죄는 해결이 되었고 내가 이 땅에서 좀 고생을 한다고 해도 죽어서는 영원한 복과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는 교리는 무리수가 많은 교리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부활은 '나중에 죽고 나서 영광이 찾아 오니 이 땅에서 고생을 참아라' 하는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오히려 '지금부터 고생하지 말고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만약 교회에 입문하기 전과 후가 동일하게 힘들다면 교회가 잘못됐는지 내가 잘못됐는지 둘 중에 하나니 포기 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거라는 말을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할 수 있는 일을 내일 더 행복하기 위해서 미루지 말아라.'고 합니다. 지금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부활한 삶을 살려면 우선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는 다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따라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바울이 말한 뜻은 죽기 전에도 안 좋은 삶을 살았는데 또 다시 태어나서 안 좋은 삶을 살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도 많았는데 또다시 태어나서 안 좋은 길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필요한 사람은 나이가 40대가 넘어서 인생의 괴로움도 겪어보고, 인생이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물음 가진 사람들에게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잣대는 육신의 잣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면 잣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잣대가 없어지고 평가가 없어지면 자기중심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 삶이 새로 태어나는 새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위대한 인물이라든가 돈이 많거나 힘이 세거나 말발이 좋거나 가문이 좋거나 그런 것들이 모두 육신의 잣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상을 구하는 사람

이니까 세상을 구하는 '어벤져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태생이나 성장과정이 우리와는 좀 다른 굉장한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울의 부활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쳐도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모르는 것은 진짜 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번 '예수가 하면 나도 한다. 예수가 하는데 왜 내가 못하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마디지만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육신의 잣대로 보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기적도 행해야 하고 예언도 행해야 하고 힘도 막강하고 언변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런 사람이니 이 세상을 구할 거라고 믿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다윗보다는 잘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떠올리며 뭔가 능력자이고 나와는 다른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남은 부활절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일년에 이 일주일만이라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예수님이 잘났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 못 믿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보다 훨씬 잘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보다 예수가 잘났다고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났다고 말하는 거나 나보다 못 낫다고 말하는 거나 둘 다 자는 육신의 잣대를 쓴 것입니다. 전혀 다른 잣대로 그리스

어떤 사람이 자기 삶에서 사랑의 진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참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 방식입니다.





도를 봐야 합니다. 그럼 어떤 잣대로 봐야 할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어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을 찾아보면 요한복음서 본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육신의 잣대로 알지 않고 어떤 잣대로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잣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가 자기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친구를 사랑하는 이런 것이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자기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이나 뒤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냐는 유일한 잣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보는 잣대가 형성이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뻐 부으신 분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권력자나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의 등불이고 우리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우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우에게 잘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봤습니까. 그러면 그가 우리를 구원할 사람으로 봅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삶에서 사랑의 진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참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의 진보가 있으면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메시아’라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구원할지 누가 여러분을 괴로움에서 건져줄지 누가 여러분을 가난에서 병과 질병과 삶의 방황에서 여러분을 구원할지, 여러분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올 것인지 생각하면, 사랑에 있어서 진보가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부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없습니다. 그러니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에 진보가 있고 형제들을 섬기는데 점점 자기를 내어놓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것입니다. 다스린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위에서 찍어누르는 것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력의 핵심은 생명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서 1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고 하니 그것을 육신의 잣대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면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를 시체가 만나면 벌떡 일어난다

는 말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육신의 잣대로 보아서 그렇습니다. 생명을 준다는 것은 사는 것이 살맛 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생기발랄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이 사람을 생기발랄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 죽어가다가도 엄마만 오면 생기발랄해 집니다. 엄마가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엄마를 만나면 생기가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들을 만나면 살맛 나는 느낌이 들어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힘도 세고, 명예도 있고, 말도 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나보다 특별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옆의 교우 중에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사람,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된 그 사람이 예가교회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며,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먹고 사는구나 하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는 삶입니다. 남은 기간, 부활한 새 피조물다운 잣대를 가지고 교우들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키워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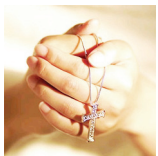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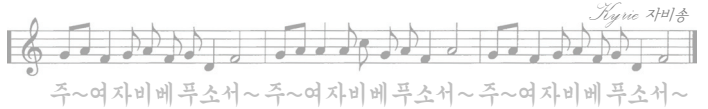
화음 김진승: 신나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신나 류수옥: 화음님의 패션 아이템을 골라 선물하겠습니다.  
 푸른 김영남: 불꽃님과 연극 '아버지'를 함께 관람하겠습니다.  
 불꽃 김강진: 푸른님을 좋아하기 위한 실천을 하겠습니다.  
 가온 양세련: 유유님에게 카톡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원 박주현: 큰열매님에게 보이스톡, 손편지, 이메일 3종세트 선물을 하겠습니다.  
 좋은 정상도: 성실님에게 감사 문자와 선물을 하겠습니다.  
 빌립 이종진: 광야님을 대접하겠습니다.  
 성실 신정아: 김밥과 간식을 준비하여 바다님과 산책을 하겠습니다.  
 찬미 정현옥: 장소준비로 수고하는 성실님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광야 김규동: 가족들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바다 김진영: 찬미님과 즐거운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즐거운 이한재: 희은님에게 말린 간식을 드리겠습니다.  
 마르다 석순명: 요한님에게 국진이빵 등 빵을 선물하겠습니다.  
 카라 이희영: 등대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요한 조현: 카라님에게 감사 문자와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희은 박용제: 카라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나무 하태용: 맑은님에게 반찬을 선물하고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늘빛 김숙정: 샘물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겠습니다.  
 독립군 이창주: 샤론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맑은 최영란: 나무님이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하고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샤론 김진수: 독립군님과 일대일 만남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샘물 박행수: 늘빛님과 사귀을 갖겠습니다.  
 사랑 최현숙: 초록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생명 김성원: 진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편지를 쓰고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초록 한춘희: 사랑님을 위해 주간 기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뿌리 조민경: 기도로 준비하여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진주 이인화: 생명님을 만나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누리겠습니다.  
 마리아 강수진: 달빛님을 좋아해서 한 주간 생각하고 감사 문자 보내고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해 석재호: 보라님에게 카톡으로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아모 박주은: 모통이돌님에게 감사카드와 선물을 하겠습니다.  
 달빛 김주영: 마리아님을 위해 기도하고 문자하고 선물하겠습니다.  
 에스더 권영아: 소망님에게 감사 문자를 하겠습니다.  
 드림 황현미: 어울님과 편지로 사귀을 가지고 선물을 하겠습니다.  
 미리내 황호영: 소망님과 준비해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은석 석순화: 미리내님에게 건강에 좋은 약을 선물하겠습니다.  
 소망 김강민: 섬김과 격려주간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 성령강림절 첫째 주



## 아침 기도

### 시편찬양

시편 104편 24-35절  
소리내어 천천히

주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놀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 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목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 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죄인들아, 이 땅에서 사라져라.  
악인들아, 너희도 영원히 사라져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 첫 기도

주님, 교회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내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주  
소서. 남의 생명을 깎아서 자기의 생명을  
채우려 했던 이기적인 옛 존재는 죽고, 나  
의 생명을 주어 많은 생명을 유익하게 하  
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존재, 성령  
으로 가득한 존재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  
여,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 독서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27-28 / 1-2 / 3-4  
5-6 / 1-2 / 3-4  
소리내어

###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 주기도

소리내어 천천히

## 하루의 계획 & 청원 기도

기도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일상계획과 말씀실천계획을 적  
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를 위한  
청원을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 중보기도

† 예가교회가 주중에는 사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에는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조  
차 잘못하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스  
스로 괴롭히는 과거의 속박을 끊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미래를 향하여, 사랑하는 존재로 살게 하  
소서.

† 예가교회가 돈과 하나님 중에 모든 것  
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서,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 온 세계와 한국의 교회들이, 화해와 일  
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  
울 수 있게 하소서.

† 한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배인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분단의  
고통을 평화적 통일로 치유할 수 있게 하  
소서.

† 예가교회의 교역자들이, 목숨을 다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  
랑의 능력을 주소서.

†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인도자들과  
재정과 수고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사  
랑의 기쁨을 주소서.





† 예가교회의 모든 활동이, 예수님의 새 가족과 새 고향의 꿈을 만들어 가는 일이 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필요들을 채워주소서.

† 예가교회의 가족모임이, 사랑을 행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소서.

† 예가교회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지켜주소서.

† 예가 식구들이, 교회의 비전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자비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 마침 기도

주님, 지난밤 주님 안에서 편히 잠들게 하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탈 때나,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되게 하소서. 아멘.



## 밤 기도

### 시편찬양

시편 104편 24-35절  
소리 내어 천천히

주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놀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 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목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 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거기만 할 것이다.  
죄인들아, 이 땅에서 사라져라.  
악인들아, 너희도 영원히 사라져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 첫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줄 모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 고백과 감사의 기도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하루를 돌아보아, 잘못된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잘된 일에는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 주기도

천천히, 내용을 따라

## 마침 기도

생명의 주님,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낮 동안 활기 있게 하신 주님, 자는 동안에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비오니, 오늘 이 밤도 나를 찾아오시어, 주님 은총의 힘으로 새벽에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 데살로니가전서 자세히 읽기

제 48 회



##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10)

구약성경에 이어서, 첫 번째로 기록된 신약성경인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은 ‘아버지’라는 표현부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순으로 기록된 7권의 진정성이 인정된 바울서신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은 개역개정에서는 24회, 새번역에서는 25회 등장한다. 바울서신에서 ‘아버지’는 비교적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다. 물론, 구약성경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셈이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쯤이면, 바울서신은 교회들에게 상당히 권위있는 책으로 읽혀진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롬1:7)

로마서의 첫 인사에서도 ‘아버지’라는 표현이 어김없이 사용되고 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롬8:15)

본문에서 ‘아빠’ (abba)는 아람어이며, ‘아버지’라는 뜻이다. 본문에서는 아람어와 헬라어로 ‘아버지’가 반복되고 있다. 본문은 로마서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아버지’가 이야기되고 있다. 로마서에 따르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교회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아들들)의 교회’이다.

바울의 첫 서신부터 마지막 서신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의 첫 인사말에서 빠지는 법이 없다. 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로 교회의 정체성이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교회’라는 명칭은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것이다. ‘에클레시아’는 그레코로만 사회에서는 ‘집회’로 모이는 모든 모임을 일컫는 일반적인 명칭이다. 그냥 ‘모임’이라는 뜻이라고 보면 된다. 개신교에서는 외경으로 분류하고 있고, 가톨릭에서는 제2정경으로 분류하고 있는, 예루살렘 출신 서기관들의 저작으로 알려진, 벤 시라(Ben Sir a)의 저서 ‘시락의 지혜’는 중세 이전의 교회에서는 교회의 생활을 위한 유익한 책으로 읽혀져서, 그 별칭을 라틴어로 ‘에클레시아의 책’ (Ecclesiasticus, Book of Ecclesia)이라 불렀다. 이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집회서’라 번역한 것이다. ‘집회서’는 유대인들의 연회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아마도,

첫 교회들은 교회의 주요한 생활양식이자 예배였던 식탁 ‘아가페’를 구현하는데 유익한 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에클레시아’가 단지 ‘모임’이란 뜻이면,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가 중요해진다. 교회는 그 모임의 성격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의 모임’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교회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표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수식어가 빠지면, 교회는 그 모임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성격없는 모임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 모임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즉,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빌2:11)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



기 삶의 모범으로 삼는다는 말이며,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말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사람이어야 할 것인데,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모범을 예수님에게 두고 있는 것이다.

바울의 저작으로는 의심되고 있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경우, 이 서신들이 바울 이후의 서신들이라면, 적어도 중세 이전의 교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상당히 충실히 따르며 살고 있는 셈이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특히,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상속’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을 몫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에베소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상속’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엡 1:11)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골1:12)

다시, 로마서로 가서 8장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받는 사건’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건이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롬8:14a)

로마서 8장에서 번역한 ‘성령’은 모두 ‘휴뉴마’를 번역한 것이다. 즉, ‘거룩한 영’이 아니라 그냥 ‘영’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성령으로 번역되었냐면, 문맥상 ‘우리의 영’과 구별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 ‘아들됨을 누리게 하는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들과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이란 점을 부각시키려고 의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을 받고 그 영으로 산다는 것이다. 즉, ‘받아들이는 일’이 먼저 있다. 그 다음에 ‘고백하는 일’이 뒤따른다.

우리는 우리를 낳은 부모가 부모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아버지’, ‘어머니’라 부른다.

어떤 아이가 자기가 평소에 엄마, 아빠라 부르던 이들이 진짜 자기 엄마, 아빠라고 받아들이고, 고백을 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었는데, 우연히 자기 부모가 생부, 생모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서 알게 되었다.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도 아니고, 제법 많은 사례들이 있다.

이 아이가 자기 부모를 부모라 고백한 일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한 경우이다. 물론, 거의 모든 경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한다. 이 아이는 철저히 자기 부모가 생부, 생모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것이다.

당신은 부모님이 당신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얼굴이 닮아서 아는가? 만일 어머니를 닮은 부분은 있는데, 아버지를 닮은 부분을 찾지 못하겠다면, 아버지가 생부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런 경우, 간혹,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화장을 해서 유전자를 건질 가능성도 없다면? 이렇게 되면, 믿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도 하지 않고, 믿고 고백한다.

이 문제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과 결부시켜 생각해 보자.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마도 당신은 앞의 예에서처럼 수동적

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지 아닌지를 좀더 확실히 해두고 싶다면 어떻게 해봐야겠는가? 인간처럼 DNA 검사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처럼 좀더 확실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바울서신은 아니지만, 바울의 가르침에 매우 충실하면서도, 하나님의 유전자가 ‘사랑’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서신이 있다. 그 서신이 바로 ‘요한서신’이다. 요한서신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한다.

요한1서는 일단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한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요일 3:10)

본문에 따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요한1서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요일4:7)

요한1서는 ‘사랑’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공통 유전자로 보고 있다. 즉, 하나님의 유전자가 ‘사랑’이고, 나의 유전자도 ‘사랑’이면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두 아버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육신으로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가 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영으로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가 있다.

내가 육신으로 아버지라 부르는 이는 내 육신이 존속하는 한 아버지로서 유효하다. 육신의 아버지가 죽어도, 내가 아직 살아있으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어떤 성향, 기질, 생김새는 그대로 유지된다.

마찬가지로, 내가 영으로 아버지라 부르는 이는 내 영이 존속하는 한 아버지로서 유효하다. 육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영의 아버지는 죽지 않는다. 다만, 내 영이 존속하는 한, 내가 영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어떤 성향, 기질, 생김새는 유지된다. 여기서 성향, 기질, 생김새는 모두 육신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들이므로, 영의 세계라서 확인할 수 없다는 궤변은 하지 말라. 생김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는 없다. 얼굴빛, 표정 등 적지 않은 부분에서 변형이 일어난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육체에 속한 생각’과 ‘성령(영)에 속한 생각’을 구별한다. 이 두 생각은 서로 충돌한다. 육체에 속한 생각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가로 막는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요한 1서의 방식대로 말한다면,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6)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7)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롬 8:6-7)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만이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영으로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

님의 아들이다.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의 대답은 죽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는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대답한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롬8:13)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더 이상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말이다. 육체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아버지만이 유효하다. 그렇다면, 육체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육체의 아버지는 유효할까? 유효하지 않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성령으로 산다고 해서, 나를 낳아준 육체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복음서가 전하는 고르반의 예에서 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를 내팽개칠 수는 없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달라진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로마서의 대답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김 아무개, 박아무개의 아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의 정체로 삼는다는 것이다.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의 대비를 통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근본의 문제, 뿌리의 문제이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나의 근본, 나의 뿌리가 바뀌는 일이다. 나의 근본, 나의 뿌리가 하나님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고, 나의 근본, 나의 뿌리가 나의 육체의 부모이면, 그 부모의 아들로 사는 것이다.

누가 나의 아버지인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의 마지막 서신

인 로마서 1장에서부터 매우 정성을 들여가며 8장에 와서 얻은 결론이기도 하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육체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육체의 생각을 따라 육체를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육체를 움직일 것인가? 사랑하지 않는 일에 내 육체를 쓸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일에 내 육체를 쓸 것인가?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므로, 우리의 육체를 사랑하는 일에 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육체의 생각에는 ‘사랑’이 없다. ‘사랑’은 ‘나’와 ‘너’라는 짝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나’가 ‘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육체의 생각이다. 육체의 생각은 ‘너’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마틴부버의 표현을 빌자면, 육체의 생각에 속한 세계에는 ‘너’는 없고, 다만 ‘그것’만 있다. 육체의 생각은 나를 인격이 없는 세계 속에서 살게 한다. 나는 ‘그것의 세계’에 속해서 살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내가 속하여 살게 되는 세계가 달라진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나를 ‘너의 세계’에 속하여 살게 한다는 말이다. 인격의 세계 속에서 살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너의 세계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은,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게 하는가 하면, ‘나’도 포기할 수 있게 한다. 나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너의 세계’,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이다. ‘너의 세계’에서는 ‘나’는 괄호 속에 놓인다.

나를 부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긍정하겠다는 것이 사랑이다. 이 때, ‘나’는 그것의 세계에서 살던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이다.

‘그것의 세계’에서 ‘너의 세계’로 옮겨간다는 것은, 육체의 아버지로부터 튀어나온



‘나’라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과는 영원히 결별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며, 전혀 비슷하지도 않은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는 ‘너’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내 앞에 놓이게 된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오직 ‘너의 세계’에 서만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로마서를 뒤집어서 읽고 있다. 다음의 경우를 보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따라 사는 교인은 거의 없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분은 대부분이 믿는다.

앞에 것은 안 믿고, 뒤의 것은 믿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뒤의 것은 앞의 것의 현상이다. 따라서, 앞의 것은 안 믿고, 뒤의 것만 믿는다는 말은,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만 취하겠다는 말이다. 겉보기에는 분명 달걀인데, 속에 내용물, 즉 흰자도 노른자도 없는 껍이다. 이래가지고는 아무리 정성들여 품어도 병아리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하고, 매일 몇 시간씩 기도생활을 해도, 성경을 모두 외워도, 교회의 모든 모임에 빠짐없이 출석해도, 교회에서 요구하는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해도,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는 말이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성령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과 무관하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맥락에서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가? 방언을 하면 성령받은 것인가? 소위, 신비체험이라는 것을 하면 성령을 받은 것인가? 바울은, 성령받은 증거를 ‘사랑’이라고 밖에 보지 않는다. 즉, 사랑

하지 않는 삶에서 사랑하는 삶으로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이 성령받은 증거이다. 내가 여전히 사랑하지 않는 삶 가운데 있는데, 성령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허다하다. 뭔가 잘못 배워도 단단히 잘못 배우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나 바울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거짓 가르침들이 널리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바울서신에 따라, 오늘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수를 세어보면 과연 몇이나 될까? 오늘날 진짜 교회로 살고 있는 교회는 몇이나 될까?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15억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어떤 이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전도한답시고 전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 것이고,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살자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로 살자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내용이다. 그런데, 뒤에 것은 짝뚱 잘라서 버리고, 앞의 것만 취한다.

이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밥상에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다. 밥상을 차린 사람이 나에게 먹으라고 하는데, 나는 구경만 하고 먹지 않는다. 그런데도 배가 부를 수 있을까?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한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맛있는 음식에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음식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권한다. 구경만 하지 말고, 먹으라는 것이다. 풀어 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경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이다. 그

래야,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풀어 말하면,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육체의 행실을 죽여야 살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성경으로 육체의 행실을 죽이지 않는데, 육체의 행실이 교인으로 살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어찌 살겠는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무조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삶이 전제되어 있다면 틀린 말이 아니다. 성령으로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전제되어 있다면 틀린 말이 아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은 천국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삶은 지옥이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천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지옥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않겠는가?

나에게 바울의 가르침이 유효하다면,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가증스러운 일에는 가담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 계속...)







#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족의 1분 스피치 & 사랑 이야기

## 사랑가족

진주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죄의 보상 선물을 챙기면서 요즘 매일 기도와 성경읽기로 내가 나를 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가족들과 3주기를 함께 보낼 생각으로 기쁨으로 준비하고 지냈다. 어떤 음식으로 건강 도시락을 준비할까 고민하고, 청소하고, 장소 준비하면서 이제 3주기의 즐거운 모임을 생각하며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는 일들이 즐거웠다.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카드를 적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더 커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논문 쓰느라 힘들어하는 생명님을 위해 맛있는 차와 케익을 대접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일대일 만남 외에 시간을 내어서 함께 이야기하고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참 좋다. 다음에도 다른 가족들과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섬기는 권력, 용서하는 권세는 나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행복하게 살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것임을 다시 깨달았다. 세상에서의 용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용서해야만 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슬픈 코미디라는 생각을 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히 섬기는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상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잘못을 나에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 화음가족

불꽃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유유님의 생일선물을 가족이 모두 함께 준비하기로 하였는데 마침 신촌에 갈 일이 생겨 자원하여 현대백화점에서 선물을 고르며 기분이 좋았다. 주일예배 설교를 녹취하여 유유님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편지도 써서 선물에 동봉했다. 오래간만에 보이스톡으로 목소리를 들으니 좋았다. 유유님의 사진으로 캐리커처를 만들면서 다른 가족들 것까지 모두 만들어 카톡으로 보냈다. 손수 만든 멸치볶음을 선물에 동봉하고 카드를 썼다. 유유님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교우들의 동영상 찍어 하루에 한 편씩 보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는 음성을 창조절까지 듣고 싶다, 예수님을 따라 두 번째 제비가 되어 봄소식을 알리겠다, 내게 잘못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권세를 누리겠다, 성찬을 준비한 포도가 죽에게 감사하겠다, 소망님에게 김치를 선물하겠다, 식탁가족 산들이에게 선물하겠다, 성실님에게 감사표현을 하겠다, 드림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맑은가족

맑은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맑은님을 위해 기도하고 카톡하며 밭에서 수확한 부추와 방아를 넣고 전을 부쳐 선물하며 기분이 좋았다. 맑은님과 산책약속을 지켜서 좋았다. 믿음으로 나를 바라봐주는 맑은님에게 감사하다. 맑은님에게 좋은 향기가 나는 바디샴푸와 로션을 준비하면서 향긋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떠올리며 좋았다. 잘못을 고백하며 모멘트 캡으로 맑은님의 밝은 모습이 담긴 카툰을 만들어 선물하였다. 샘물님의 꿀떡간식을 사며 좋아하는 얼굴 그려보며 즐거웠고, 맑은 기운을 나누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세상은 자기에 잘못된 사람은 죽이고, 다른 사

람에게 잘못된 사람은 용서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소원하며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과 같은 유일함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에 따라 마가복음서의 가르침을 따르고 기도하며 살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소원하며 살겠다, 식탁가족 아들에게 하드를 준비하겠다,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성실가족

성실님 집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바다님과 오랜만에 강변을 걸었다. 강변을 따라 이촌까지 걷고 돌아오는 길에 다리는 당겼지만 저녁놀도 예쁘고 바람도 시원해서 좋았다. 순두부찌개로 허기진 배도 채우고 몸과 마음이 뿌듯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선택하고 교회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좋은님을 격려하는 사귀이 좋았다. 빌립님에게 드릴 문자를 생각하면서 빌립님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함께 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간식으로 드실 체리를 선물했다. 찬미님에게 힘이 되고자, 회사로 찾아가 보양식을 대접할 계획을 세웠는데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아 죄송했지만, 사는 이야

기를 나누며 더욱 좋아하고 잘하려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어 좋았다,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또 그러한 삶으로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되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교회 안에서 권력자는 섬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사신 '섬기는 권력'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교회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교우들을 사랑하고 더욱 좋아하겠다, 주일식탁에 간식을 준비하겠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기다리신다, 나도 나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겠다, 식탁가족 명화(이정우)에게 엽서와 선물을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소식가족

유랑님 집에서 7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항상 가족들에게 손수 만드신 카드를 주시는 유랑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율무차를 선물했다, 즐거운님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대접했다, 즐거운님과 믿음의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든지 잘 들어주시는 즐거운님의 마음 씩씩이에 다시 한 번 감사했다, 마르다님에게 설령탕을 대접하고, 여행 가방을 선물했다, 마침 900호 퀴즈에서 당첨된 선물

을 나눌 수 있어 더 좋았다, 희은님이 톡툰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준비했다, 희은님에게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며 희은님이 더 좋아졌다, 요한님에게 간식으로 먹을 오징어포를 선물하였다, 요한님의 환한 모습과 밝아진 얼굴표정이 나에게 큰 힘을 주어서 고맙다, 가족을 생각하며, 기분 좋은 한 주간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 시간에는 "교우들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행동이 없이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섬김, 용서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더더욱 내가 먼저 섬기겠다는 기도로 살겠다,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살맛나는 권세, 생명을 주는 호홉기도로 부활절 마지막 주를 살아야겠다, 성찬대접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식탁가족 미르(김정인)에게 감사함을 전하겠다, 편집부에 감사문자를 하겠다, 식탁가족에게 안부문자를 하겠다, 초등부의 콜라(이도원), 엔젤(김연우), 스파이더맨(박민혁)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이야기를 나누겠다, 찬미님에게 감사문자를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드림가족

소망님 집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은석님에게 갓 짠 참기름을 선물해드렸다, 은석님과 함께 영화를 고르고 영화관에서 재미있게

본 후에 영화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았다, 여름에 운동할 때 좋을 것 같아서 소망님에게 썬크림을 선물했고, 소망님에게 2주기 가족을 좋아하고 살아온 것을 감사하고 3주기를 희망하며 문자를 하고, 청바지를 선물하였다, 부활절 마지막 주간 가족과 교우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얼굴을 떠올리며 나도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며 3주기를 시작하게 되어 감사하다, 드림님에게 내가 만든 월병을 선물하고 다음에는 드림님과 더 재미있는 활동을 계획해 보겠다, 에스더님과 늦은 시간에 한가한 극장에서 만나 영화를 보고 수다를 떨었다, 한 주 먼저 만났지만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교회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권력자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는 사람이 권력자이다, 사람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공유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육신의 잣대로 보는 세상의 섬김, 권력, 용서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권력, 용서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3주기를 잘 살아야겠다, 늘 깨어 있도록 기도하며 내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감사하겠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 포도가족

모통이돌님 집에서 5명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

는 "한 주간 아모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니 아모님에게 감사한 것들이 생각났다, 감사문자 보내고 선물을 준비해서 만남을 갖는 시간이 즐거웠다, 새롬님에게 화요일에 편집한 사진을 주고 일대일 만남을 했다, 새롬님을 생각하며 준현이 사진을 편집했는데 준현이의 귀여운 모습이 떠올랐고, 새롬님과 대화하며 8월이면 볼 수 있을 새롬님이 생각나며 사귀를 통해 더 가까움을 느꼈다, 쉬는 기간도 없이 바로 다시 출장을 나간 보라님에게 격려의 e-card를 보냈다, 보라님이 출장 중에 기분전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카드를 고르면서 보라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짐을 느끼며 좋았다, 모통이돌님에게 오프레와 토마토를 준비하며 모통이돌님 생각하니 좋았다, 성찬준비 대장을 맡은 달빛님을 위해 고등어준비를 맡았다, 고등어 조림이 맛있게 되어서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섬기는 자의 권력은 세상의 섬기는 자의 권력과 다름을 생각해 보았고 내가 그리스도와 공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임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로 살기를 희망한다. 부활절기에 믿음이 성장하는 교우를 그리스도로 보는 부활하는 삶을 살겠다, 불꽃님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가족모임 하는 날

드림가족 소망 김강민



드림가족 2015년 스토리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있는 6개의 주제가 있는 방을 가족들이 한 명씩 방장을 맡아 한 주기를 살아가는 것이다.

1주기에는 '웃음방'으로, 가족모임으로 모이면 미리내님의 재미있는 유머와 10초 웃음으로 가족모임을 웃으며 시작했다. 또 가족들이 웃는 셀카를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 웃음을 전파했다. 아침에 지하철에서 가족들에게 웃는 사진을 보내기 위해 조금은 민망해지만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씩스럽게 웃음셀카를 찍던 즐거운 추억들이 생각난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가족들이 웃으며 지내기를 바라는 1주기를 보내서 좋았다.

2주기에는 '지금 여기방'으로 과거의 나도, 미래의 나도 없이 오직 오늘,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나의 오늘을 만들어 가는 방이다.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나를 만나는 방이기도 하다. 기도에도 힘쓰며 가족이 하나되는 것에 힘쓴 주기이다. 가족 전원이 전주로 집밥 요리수업 애크터를 1박2일 동안 다녀오며 전주 새누리 교우들과 사귀고 텃밭을 함께 만들고 연경반수업을 함께 듣고, 목사님방 청소를 하면서 소파를 함께 빨고 또 킁킁거리며 열심히 끼운 일들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기도를 통해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에 힘이 더해지고 즐겁게 사귀게 되었다.

이제 3주기가 시작된다. 3주기는 '함께 먹어요 방'으로 소망 장금인 내가 방장이다. 가족모임으로 가족들을 먹이고 섬김주간에 섬기는 기쁨으로 가족들을 먹이고 성

찬으로 교우들을 먹이고 봄날 테라스파티로 가족과 교우들을 먹일 계획들을 세웠다.

예전 가족모임식사를 준비할 때는 조금은 특별한 음식으로 상을 잘 차려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은 내가 먹는 밥을 함께 먹는다는 생각으로 식사를 준비한다. 그런 생각이 좀 더 편안하게 가족으로 내가 받아들여져 있으면 있는대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다.

오늘 3주기 첫 가족모임을 하는 날이다. 묵상과 아침기도를 하면서 하루의 계획을 세웠다. 내일 센타 요리수업준비와 가족들의 식사준비, 그리고 집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루의 계획을 세웠다. 워크북과 죄의 고백, 섬김 제안서 등 가족모임에서 해야 할 것들은 어제 준비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 여유 있게 가족모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침에 가족들이 우리 집에 와서 좀 더 편안하게 모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집청소를 하였다. 군데군데 쌓인 먼지도 한번 더 닦으면서.

그리고 오늘의 저녁식사 메뉴로 정한 열갈이 배추국, 자반고등어구이, 찜야채, 감자조림, 콩나물무침, 고추무침, 호박전을 할 재료를 시장에 가서 구입하고 야채를 다듬었다. 열갈이를 데치고 콩나물을 데치고 양배추를 찢고 상추와 오이와 당근을 씻고 다듬으면서 준비하는 내내 우리가족들이 와서 함께 먹을 음식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기분이 참 좋았다. 그러면서 나처럼 오늘 가족모임 식사준비를 하는 교우들이 6명이 더 있을텐데 그 분들도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더 좋았다.

그리고 다음주에는 어떤 메뉴로 가족들과 함께 먹을까 생각하며 행복한 고민에도 살짝 빠졌다.

1, 2주기에 감사하고 기쁜 날들이 참 많았는데 내가 방장으로 있는 3주기에는 더 감사하고 기쁜 날들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가 된다. 내가 더 주도적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겠다.

3주기 시작하는 첫 가족모임 날인데 나는 그 첫날부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오늘이라는 나의 복주머니를 3주기는 바구니 안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겠다.





# 전주새누리교회 소식

전주새누리교회 소식을 신습니다. 사랑하는 삶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나누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예가교회 형제들에게 전주새누리교회에서 소식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전주새누리교회와 예가교회에 있기를 빕니다. 전주새누리교회와 예가교회가 이렇게 서로의 소식을 나눔으로 우리의 믿음의 사귄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합니다.

## 중등 양육모임, '화요수다방'

올해 새롭게 시작된 중등과정 양육모임이 김성철 전도사의 인도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매주 화요수다방을 열어 기쁨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일과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중등과정 아이들은 분주한 새 학기를 보내고 5월부터 주말합숙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아이들 방도 마련하고 지난주에는 예쁜 이불도 구입했습니다. '교회로 나를 키운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불편하게 왜 합숙을 하라는 건지' 등, 교회로 모으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아직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서로의 관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에 서툰 하지만 교회 안에 있으니 날마다 좋아질 것이라 믿고 갑니다.

## 예가새누리 친교의 장, 집밥요리강좌

예가교회 석순화님의 도움으로 4월과 5월 한 차례씩 두 번에 걸쳐 집밥요리 강좌가 열렸습니다. 4월에는 드림가족이 함께와 밤늦게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밥도 함께 지어 먹고 전주 남부시

장 야시장에서 봄 밤도 즐기며 집밥 요리를 구실로 예가 교우들과 즐거운 친교의 시간이 되어 의미 있었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맛있는 요리로 은사를 나눠주신 석순화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부처님 오신 날 찬불가 부르는 새누리성가대

5월 2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완주군 송광사에서 새누리교우들을 초대했습니다. 송광사는 해마다 지역주민들에게 사찰 음식을 대접하고 산사음악회를 열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데, 특별히 올해는 산사음악회에서 새누리성가대가 찬불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된 새누리성가대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랐던 부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낮선 찬불가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종교를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 신앙입문반 4기, 교인되기반 1기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중심을 바로 보게 했던 신앙입문반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는 6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총 7회 일정으로 진행 될 신앙입문반은 벌써 4기를 맞고 있습니다. 15명을 목표로 교회 밖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에 정성을 쏟고 있는데, 이번에도 함께 한 사람들 모두가 즐거운 삶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고대하던 교인되기반도 드디어 6월 7일에 문을 엽니다. 주일 예배 후에 대략 10강 정도 계획하고 있고, 예가교회에

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참고해 어떤 내용들로 강의를 더욱 풍성하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인되기반을 통해 우리들의 사는 실력이 더욱 좋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 나에게 집중하는 가족모임 3주기

가족모임이 3주기를 맞았습니다. 이번 주기 교우들의 결단은 '나에게 집중하기'입니다. 모여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타인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며 타인이 나의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이르기까지 실력을 키워갑니다. 가족모임 3주기를 보내며 더욱 성장한 새누리 교우들의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 예가 소식 & 공지

1. 오늘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형제를 먹는 사랑으로 살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고, 누립니다.

2. 다음 주일설교는 전주새누리교회 양진규 목사님 초청설교입니다.

3. 데살로니가전서 읽기 모임은 주일 저녁 7시에 친교실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연경반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2주 정도씩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예가교회의 교인은 1년에 12주 참여를 권하고 있으니, 상반기나 하반기 중 정하여 참여 바랍니다. 또한, 연경반 강의는 매주 자료실에 업로드 하고 있으니, 참여하지 않는 교우들도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들을 수 있습니다.

4. STS(Searching The Scriptures)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STS 모임 진행 중에도 언제든지 초청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초청 바랍니다.

5. 신앙입문반(101) 36기가 이번 주 금요일인, 5월 29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시작됩니다. 36기는 7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6. 목요기도회는 목요일 밤 9시 30분에 친교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을 위해 기도하는 유일한 공식 기도집회이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목요일 밤 기도를 할 때에는 소식지의 '소식 및 공지'를 펴놓고, 교회의 활동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포함해 주십시오.

7. 계좌로 현금하신 교우들은 현금 봉투에 이름, 보낸 날짜, 현금명세를 적어 봉헌위원에

게 내주십시오. 해외빈민구제 목적의 주일헌금도 매주 잊지 마시고 참여 바랍니다.

8. 다음 주일 예배위원은 마르다, 희은님입니다. 또한, 다음 주 배찬은 교우배찬입니다. 배찬위원은 드림, 맑은, 희은님입니다. 예배위원과 배찬위원은 공지가 나가면, 예배의 뜻을 새기며 기도와 형제를 좋아하는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대접은 소식이족이 대접합니다. 5월 봉헌위원은 바다님입니다.

### 날짜 성경읽기

월	레위기 14장 ~ 레위기 18장
화	레위기 19장 ~ 레위기 24장
수	레위기 25장 ~ 민수기 2장
목	민수기 3장 ~ 민수기 7장
금	민수기 8장 ~ 민수기 14장
토	민수기 15장 ~ 민수기 20장

\* 소식지의 통독표를 따라 읽으면 한 해에 1독 이상을 하게 됩니다.

\* 읽고 난 후 교훈을 1개 적고, 교훈에 따라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1개 적은 후, 그날에 실천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바로 순종이며,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아서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삶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 예배를 준비하여 드립니다. 예배준비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가 교우들을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YEGA community church**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일반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67

건축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71